

# 벤투호 월드컵 예선 전력 공백 부담

### FIFA, 대표팀 의무 차출 규정 완화 4월까지 연장 안전상 문제로 '거부 가능'... 해외파 합류 미지수

다음 달로 예정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손흥민(29·토트넘) 등 해외파 선수들이 합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올해 4월 말까지 선수 의무 차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기간 모든 구단은 각국 대표팀의 선수 차출 요청에 응해야 하지만, FIFA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에 따라 선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로 차출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대표팀에 선수를 보내줘야 하는 클

립의 국가가 도착 이후 5일 이상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면 대표팀 소집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또 경기가 치러질 국가가 5일 이상 자가격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차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FIFA는 현지 시간으로 이달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규정을 올해 4월 말까지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FIFA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남아있어 대표팀 선수 차출 등 규정과 관련해 유연성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 규정은 2021년 4월 말까지 치러지는 모든 남녀 축구·풋살 대

팀 경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선수가 A매치 이후 자가격리 때문에 소속팀 일부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만큼, 구단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그러나 대표팀은 해외파 선수들이 전력 공백을 떠안고 A매치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다음 달에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홈 경기 1회·원정 1회)를 치르고, 6월에는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모두 홈경기)와 친선전 2경기를 펼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3월 예선 경기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선 4경기가 모두 6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3월에 예정대로 두 경기가 치러진다고 해도 해외파 선수들의 소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그동안 한국 등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이들의 격리를 면제해 왔으나,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10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비를 들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영국 도착 5일 뒤에 가능하다. 조치가 3월까지 완화되지 않는다면 손흥민은 A매치를 치르고 영국에 돌아갔을 때 최소 5~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소속 선수의 대표팀 차출에 부담을 느끼는 해외 구단들이 선뜻 선수들을 내줄지는 미지수다.



약 2년 만에 득점포를 쏘아 올리고 팀 동료들과 기뻐하는 지동원. 연합뉴스

## 지동원 2년 만에 '부활의 득점포'

### 브라운슈바이크서 2번째 경기 선발 출전 전반 17분 선제골

독일프로축구 2부 분데스리가 브라운슈바이크로 임대된 공격수 지동원(30)이 공식 경기에서 약 2년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지동원은 6일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의 아인트라흐트-슈타디온에서 열린 하노버와의 2020-2021 2부 분데스리가 20라운드 홈 경기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 0-0이던 전반 17분 선제골을 뽑아냈다. 시즌 1호 골이자, 지난달 30일 홀슈타인 킬과의 19라운드 도움에 이은 두 번째 공격 포인트다.

지동원이 공식전에서 골을 넣은 건 독일 1부 아우크스부르크 소속이

던 2019년 3월 1일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부상에 시달리고 출전 기회도 잡지 못했던 지동원에겐 부활을 알리는 한 방이다. 이번 시즌 브라운슈바이크는 지동원의 임대 영입을 알린 다음 날 킬과의 19라운드부터 그를 후반전 시작 때 교체 투입했고, 이날은 선발로 기회를 부여했다.

전반 17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파비오 카우프만의 패스를 오른쪽 슛으로 연결,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찰라 넣은 지동원은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드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지동원이 후반 36분 솔레이만 압둘라히와 교체될 때까지 썸 가운데 1-2로 패한 브라운슈바이크는 2연패를 당해 강등권인 17위(승점 17)에 머물렀다.

## 2021 제주Utd 유니폼 공개

### 푸마·팀퍼스트와 협업 진행 10일까지 유니폼 사전 판매

올해 1부리그에 복귀하는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2021시즌 유니폼을 공개했다.

제주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푸마(PUMA)'와 협조를 통해 경기력 향상과 차별성을 담은 새로운 유니폼을 지난 5일 선보였다. 푸마의 독자 기술인 드라이셀(dryCELL) 기능을 적용해 열기와 땀을 신속하게 배출해 경기 중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의 쾌적함과 착용감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올 유니폼은 주황색을, 어웨이 유니폼은 흰색을 바탕으로 푸마 글로벌 팀 스포츠에서 사용중인 그래픽 패턴과 함께 전면이 모기업 SK 에너지 로고 뿐만 아니라 연구지 제주도의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해 유니폼과 스타킹에

제주를 담았다.

골키퍼 유니폼은 핑크와 하늘색을 바탕으로 강인함을 강조했다. 또 경기력 향상을 위해 넥 칼라 부분을 독자적인 디자인의 라운드로 변경했다.

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유니폼 화보는 '팀퍼스트'와 협업해 촬영했다. '팀퍼스트'는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인 모델, 배우, 가수, 래퍼,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스타일리스트, 아트 디렉터, 크리에이터 등이 모여 창단한 아마추어 축구클럽으로 'TFFC STUDIO'를 통해 그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창작 및 협업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제주는 'UNI-FORM' 컨셉으로 '경기장'에 있는 선수와 '집'에 있는 팬의 모습을 데칼코마니로 표현했다. 언택트 시대에 만남이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선수와 팬의 유니폼이 마치 하나로 표현돼 서로를 이어주는 매



2021시즌 1부리그에 복귀하는 제주Utd의 유니폼.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개체 역할을 한다. 그 의미를 되새기는 서브 슬로건은 'WE STILL UNITED'이다.

제주는 향후 '팀퍼스트'와 협업 및 유대관계를 돈독히 다지고 다양한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해 서로 발전해나가는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제주는 오는 10일까지 유니폼 사전 판매도 진행한다. 이메일을 통해 주문하면 되며, 사은품으로 구단 텀블러를 증정한다. 사전 판매로 구입한 유니폼은 오는 15일 후 일괄 배송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최지만 연봉조정 승리 올해 245만달러 받는다

최지만(30·탬파베이 레이스)이 구단과 맞붙은 미국프로야구(MLB) 연봉 조정에서 승리해 올해 245만달러(약 27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AP 통신은 3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연봉조정위원회가 최지만의 손을 들어줬다고 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최지만은 연봉 협상에서 245만달러를 요구했고, 구단은 185만달러로 맞섰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양측은 연봉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기대기로 했다.

연봉조정위원회는 5일 양측의 얘기를 청취한 뒤 하루 만에 최지만의 승

리를 선언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팀당 60경기만 치른 지난해에 최지만은 경기 수에 비례해 연봉이 줄어든 탓에 인센티브를 포함해 42만7148달러만 받았다.

팀당 162경기로 돌아간 올 시즌이 예정대로 끝난다면 최지만은 작년보다 6배 가까이 많은 돈을 가져간다.

특히 2010년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연봉 100만달러 이상을 받아 최지만은 큰 보람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세 자릿수(100만달러 이상) 연봉을 받는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연봉조정위원회가 오프 시즌 13건의 조정 신청 사례 중 3건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최지만만이 유일하게 구단을 이겼다.

## 제주시청 강조한, 대한육상연맹 이사 선임

강조한 제주시청 마라톤동호회 하이런 회장(52·사진)이 대한육상연맹 이사로 선임됐다.

대한육상연맹은 최근 대한민국육상을 책임질 제24대 대한육상연맹 집행부를 새롭게 선임했다.

이 날 새로 선임된 강조한 이사는 지난 1989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현재는 제주시청 체육진흥과에 근무하며 제주시체육회 이사를 맡고 있다. 제주도육상연맹 상임이사와 제주시육상연맹 전무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신임 강 이사는 지난 2017년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회 감독을 맡아 제주특별자치도를 사상 처음 종합우승으로 이끌었다. 지난 2011년 전



국생활체육 육상경기대회에서 제주선수 최초로 4관왕에 오르는가 하면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하며 제주육상의 위상을 높였다.

신임 강조한 이사는 "한국육상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사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기 4년 동안 한국육상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10104-중-117942호

❖ 이겨낼수있어요  
❖ 힘내라대한민국

MEDICHECK

코로나19 감염 예방 극복에 노력하시는  
도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후 丑年 올해 건강하십시오.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 일동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제주) http://jeju.kahp.or.kr T. 064)740-0200